

한국어 기동 동사의 어휘 의미 구조와 생성적 기제*

김윤신
(서울대학교)

Kim, Yoon-shin. (2005). The lexico-semantic structure and generative mechanism in the Korean inchoative verbs. *Language Research* 41(3), 493-516.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lexico-semantic structure of the Korean inchoative verbs and their generative mechanism by means of the Generative Lexicon approach. This paper uses the extended concepts and formalisms of the Generative Lexicon Theory (Pustejovsky, 1995 2000), specially, Pustejovsky's (2000) opposition structure. Inchoative verbs mean the change-of-state and they also belong to achievements in terms of Vendler's (1967) aspectual classe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Korean inchoative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he *gradable*, the *semi-gradable* and the *ungradable* one, considering their aspectual interpretation, semantic properties of their arguments and their opposition structures reflected in their event structures. The *gradable* inchoatives denote the gradual change related to some scale. Thus, they have a dimensional noun (i.e. height, width, or temperature) as their theme argument and polar property of their opposition structure. The *semi-gradable* inchoatives express the change related to a certain scale but restricted to a culmination point. So they have an event argument and both binary and polar property of their opposition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ungradable* inchoatives are typical achievements and mean the change with culminating point. Therefore, ungradable inchoatives have the typically affected theme argument and the binary property of their opposition structure.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gradable and semi-gradable inchoatives show the generativity of the lexicon by the type coercion. The typology and the lexico-semantic structures of the Korean inchoatives in this paper are just a starting point of further studies of the comprehensive classification of other change-of-state verbs.

Key words: inchoatives, change-of-state, event structure, scale, theme argument, gradable, semi-gradable, ungradable, opposition structure, event persistence principle, binary property, polar property, type coercion

* 보잘 것 없는 논문을 세심하게 읽어 주시고 소중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미진한 부분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밝혀둡니다(KRF-2002-074-AM1534).

1. 서론

동사는 기본적으로 움직임이나 변화, 그리고 변화에 수반된 결과 상태 등의 사건(event)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휘 의미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사 의미에 대한 많은 연구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동사가 두 가지 이상의 표면구조에 실현되는 교체 현상(alternation)은 논항 구조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동사의 어휘 의미 구조에 대한 연구에 “사건 구조(event structure)”라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게 되었다.¹⁾

이와 같은 사건 구조에 대한 관심은 논항 구조의 다양한 실현으로 나타나는 다형성(polymorphism)을 설명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Vendler (1967)가 제시한 네 가지 상적 부류(aspectual class)에 대한 재고와 이러한 상적 부류와 사건 구조의 연관성,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에 기반한 “어휘상(lexical aspect)”에 대한 연구로 확대할 수 있다. Vendler (1967)에 따르면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의 사건 구조를 기준으로 동사를 상태 동사(state verb), 행위 동사(activity verb), 그리고 달성 동사(achievement verb)와 완성 동사(accomplishment verb)로 나눌 수 있다. 상태 동사와 행위 동사는 하나의 동질적인 사건만이 존재하는 단순 사건 구조를 갖는 반면, 달성 동사와 완성 동사는 상태 변화 동사(change-of-state verb)로 변화 전의 국면을 나타내는 하위 사건과 변화 후의 국면을 나타내는 하위 사건으로 구성되는 복합 사건 구조를 나타낸다.

기동 동사(inchoative verb)²⁾는 상태나 과정의 시작을 초래하는 변화를 나타내는 상태 변화 동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사태의 어떤 국면이 막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어의 기동 동사는 ‘뜨다’와 같이 단일어이거나 형용사나 동사 어근에 ‘-어지다’나 ‘-되다’ 등이 붙어 파생된다³⁾. 이러한 여러 가지 구성 유형을 보이는 기동 동사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은 ‘-어지다’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Lee (1973)는 ‘-어지다’를 기동 보조 형성소(inchoative auxiliary formative)이며, 또한 상태 변화 구성(change-of-state construction)을 이루는 가장 생산적인 구조라고 밝혔다. 이 논문은 이 유형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기동 동사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기로 하며 다른 유형들로부터도 중요한 증거들을 찾

- 1) 사건 구조의 개념을 동사의 어휘 의미 기술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는 Grimshaw (1990)이다.
- 2) 한 심사 위원께서 달성 동사 가운데 기동 동사와 기동 동사가 아닌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에 대한 지적하고 ‘죽다’와 ‘도착하다’가 기동 동사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다. 이 논문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 동사도 모두 기동 동사이며 대부분의 달성 동사는 기동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3) 타동사 어근과 ‘-어지다’나 ‘-되다’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피동동사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의 동사는 단순한 피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주어인 대상이 새로운 국면을 시작함을 나타낸다. 이는 영어의 ‘become V-ed’에 해당한다.

으려고 할 것이다.⁴⁾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파생되는 한국어의 기동 동사는 그 상적인(aspectual) 행태에서 일관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어지다’와 결합하는 형용사나 동사 어근의 특징에 따라 상이한 상적인 양상을 보인다. 척도 개념을 갖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어지다’류와 그렇지 않은 동사에서 파생된 ‘어지다’ 부류는 상적으로 다르게 행동하며 이러한 상적 해석을 근거로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측면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다른 어휘 의미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어휘 의미 구조를 근거로 다양한 표면 구조상의 논항 실현을 추론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나타나는 어휘 의미론의 여러 가지 경향 가운데 Pustejovsky (1995)의 생성 어휘부 이론(Generative Lexicon Theory)⁵⁾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Grimshaw (1991)에서 제시한 사건 구조의 층위를 어휘 의미 구조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Jackendoff (1982, 1990)의 개념 구조(conceptual structure)에 비해 분석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의미 구조를 제시한다. 특히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를 특질 구조 속에서 통합함으로써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지며 이를 통해 어휘상에 대한 개념을 어휘 의미 구조상에서 보다 분명히 가시화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어의 파생 기동 동사의 어휘 의미 구조와 그 생성적 기제를 기술하기로 한다. 우선 2장에서는 기동 동사의 상적 해석을 살펴보고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척도(scale) 개념을 근거로 세 가지 유형의 기동 동사들이 갖는 논항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적 특징과 논항 구조를 근거로 파생 기동 동사의 사건 구조를 Pustejovsky (2000)의 대립 구조(opposition structure)에 근거한 사건 지속 원리(event persistence principle)를 통해서 제시할 것이다. 또한 5장에서는 이러한 어휘 의미 구조를 근거로 다양한 논항의 실현을 설명하는 생성적 기제(generative mechanism)를 제안할 것이다.

2. 기동 동사의 상적 해석

복합 사건 구조는 보통 선행하는 과정(process) 사건과 후행하는 결과 상태

4) ‘시작되다, 끝나다’와 같은 상동사(相動詞, aspectual verb)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류의 동사는 단순한 기동 동사로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추후에 논의하고 이들의 특징과 다른 기동 동사와 연관성을 살펴하기로 한다.

5) 이 이론을 “생성 어휘론”으로 지칭하는 일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주요한 반론은 Generative Lexicon Theory는 어휘 의미론의 한 경향이지 어휘론(lexicography)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생성 어휘론을 영어 용어로 옮긴다면 Generative lexicography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론은 어휘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간주되는 반면, 생성 어휘부 이론은 어휘 의미의 기술이 그 목적이다. 이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용어 사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resultant state) 사건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이 두 사건 중에서 어느 사건이 두드러지나(prominent)에 따라서 달성 동사와 완성 동사로 구분된다. 특히, 달성 동사와 완성 동사가 나타내는 복합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변화’이다. 일단 그 변화의 양상이 달성 동사는 순간적인 반면 완성 동사는 진행되는 과정을 지난 후에 나타나는 변화라고 이해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동 동사는 변화의 시작 국면을 나타내므로 변화 전과 후의 국면을 각각 개별적인 하위 사건으로 하는 복합 사건 구조를 갖는 전형적인 달성 동사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어지다’류의 동사를 비롯한 기동 동사를 비롯한 많은 기동 동사들은 대부분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그 상적 행동이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부류로 설정하는 것에 의심이 가는 경우가 많다. 이 장에서는 달성 동사인 기동 동사의 사건이 갖는 상적 해석과 그 해석을 근거로 한국어 기동 동사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겠다.

달성 동사는 하위 사건 중 후행하는 결과 상태의 사건이 두드러지는 사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달성 동사는 과정을 나타내는 하위의 사건에 관계된 ‘-고 있다’ 구성이나 과정의 지속과 관련된 양태 부사나 지속 부사구 등과 같은 부가어(adjunct)와는 결합할 수 없다.

먼저, 시간 부사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Dowty (1979) 등이 언급했듯이 ‘in an hour, for an hour, at one o'clock’과 같은 시간 부사구는 상적 부류를 구별하는 고전적인 기준이다. 많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 ‘in an hour’와 같은 시간틀 부사구(frame adverbial)는 달성 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반면 ‘for an hour’와 같은 지속 부사구(durative adverbial)는 과정 사건의 비중이 큰 행위 동사와 완성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리고 ‘at one o'clock’과 같은 시점 부사구(point adverbial)는 사건의 정점(culminating point)이 있는 달성 동사나 완성 동사와 함께 나타난다. 그러면, 이 각각의 예를 차례로 한국어의 파생 기동 동사에 적용시켜 살펴보자. 다음에서 시점 부사구를 포함하는 예들을 살펴보자.

- (1) a. ?*꽃송이가 두 시에 커졌다.
b. ?*기온이 두 시에 높아졌다.
- (2) a. ?*기차의 출발이 두 시에 늦어졌다.
b. ?*식탁이 두 시에 깨끗해졌다.
- (3) a. 촛불이 두 시에 꺼졌다.
b. 그 낡은 건물의 창문이 두 시에 깨졌다.

(1)~(3)의 예문들은 모두 시점 부사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1)의 ‘커지다’와 ‘높아지다’, ‘눅다’, 그리고 (2)의 ‘늦어지다’나 ‘깨끗해지다’는 어색한 반면 (3)의 ‘꺼지다’나 ‘깨지다’는 시점 부사구가 분명히 허용된다.

‘동안’과 같은 지속 부사구를 포함하는 예들을 살펴보면 파생 기동 동사의 상적 해석이 다른 전형적인 달성 동사와 다른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 (4) a. 꽃송이가 이를 동안 커졌다.
b. 기온이 세 시간 동안 높아졌다.
- (5) a. ?*기차의 출발이 삼십 분 동안 늦어졌다.
b. *식탁이 삼십 분 동안 깨끗해졌다.
- (6) a. 촛불이 삼십 분 동안 꺼졌다.
b. 그 낡은 건물의 유리창이 이를 동안 깨졌다.
- (7) a. *영희네 강아지 한 마리가 이를 동안 죽었다.
b. ??*영희네 강아지들이 이를 동안 죽었다.⁶⁾

(4)의 ‘커지다’와 ‘높아지다’는 (7)의 전형적인 달성 동사인 ‘죽다’와 달리 지속 부사구를 허용한다. 특히 지속 부사구가 제시한 시간 동안 변화의 사건이 계속 진행됨을 ‘깊이’나 ‘계속’과 같은 부사와의 함께 나타날 경우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5)의 ‘늦어지다’와 ‘깨끗해지다’는 지속 부사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색하다.⁷⁾ (6a)에서 ‘꺼지다’는 전체 사건의 반복과 꺼진 결과 상태의 지속 시간을 나타내며⁸⁾ 반면 (6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깨지다’는 대상 논항이 복수로 실현되는 경우에만 (7b)와 같이 자연스러운 사건 전체의 반복 내지는 개별 사건의 연속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어렵게 가능하다.

또한 시간들 부사구인 ‘-만에’를 파생 기동 동사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6) 한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7b)는 ‘죽었다’ 앞에 ‘다/모두’가 삽입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부사들은 이를 동안 강아지가 한 마리씩 죽는 사건이 계속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 7) 한 심사위원이 상황에 따라서 ‘높아지다’류와 ‘늦어지다’류의 변화의 점진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특별한 맥락에 따른 의미의 변화로 판단되며 이 경우는 각각의 동사가 나타내는 기본적인 변화를 근거로 맥락에 의한 의미 변화의 패턴을 더 많은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맥락에 따른 문법성 판단의 상대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맥락에 의한 의미의 변화를 어디까지 어휘 의미로 수용하는가 하는 점은 모든 어휘 의미론자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 따른 의미 변화의 문제는 맥락과 어휘 의미에 대한 또 다른 논문에서 밝히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당장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고 또 제 논문의 미진한 점으로 남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이 연구를 발전시키고 심화시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8) 두 분의 심사위원이 (6a)의 경우에 대해서 결과 상태의 지속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해 오셨다. 물론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만약 ‘촛불 수십 개가 삼십분 동안 꺼졌다’와 같이 복수의 주어가 온다면 전체 사건의 반복이나 개별 사건의 연속으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어의 경우 복수 주어의 표지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하였다.

- (8) a. 꽃송이가 이틀 만에 커졌다.
b. 기온이 세 시간 만에 높아졌다.
- (9) a. 이 역이 생긴 이래로 삼십 년 만에 기차의 출발이 늦어졌다.
b. 식탁이 삼십 분 만에 깨끗해졌다.
- (10) a. 촛불이 삼십 분 만에 꺼졌다.
b. 그 낡은 건물의 유리창이 이틀 만에 깨졌다.
- (11) 영화네 강아지 한 마리가 병이 나서 이틀 만에 죽었다.

사건의 완결을 나타내는 시간들 부사구와는 파생 기동 동사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에 문제가 없다. (9a)의 경우에는 ‘늦어지는 사건’이 비로소 발생하기 이전에 예비 과정에 해당하는 시간이 삼십 년이 흘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시간들 부사구 ‘만에’는 완결 사건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미완결의 사건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도 완결점을 도입하는 부가어가 나타나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실현된다.

- (12) a. 요즘 기온이 이틀 만에 5도나 높아졌다.
b. 이 길이 3년 만에 2배가 넓어졌다.

이와 같은 시간들 부사구는 사건의 완결성과 관련하여 정도 부사 ‘거의’와 파생 기동 동사의 공기 관계가 관찰된다. ‘거의’는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의 진행 상황이 화자가 염두에 둔 완결점에 육박하고(approximate)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13) a. *철수가 거의 걸었다.
b. ??철수가 거의 집을 지었다.
- (14) a. *이 방의 온도가 거의 높아졌다.
b. *이 길이 거의 넓어졌다.
- (15) a. 기차의 출발이 거의 늦어졌다.
b. 식탁이 거의 깨끗해졌다.
- (16) a. 촛불이 거의 꺼졌다.
b. 그 집 창문이 거의 깨졌다.

(13a)의 예문으로 알 수 있듯이 대표적인 미완결의 사건을 나타내는 행위 동사(activity verbs)는 ‘거의’와 공기할 수 없으며 (13b)와 같이 완성 동사는 ‘거의’가 수식하는 것이 완결점이라기 보다는 집을 지은 과정이 거의 ‘철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완결된 사건을 의미하는 ‘만에’ 부사구와의 공기 상황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 부류의 파생 기동 동사의 완결성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높아지다’ 부류는 그 완결성이 불완전하여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고 ‘늦어지다’ 부류는 완결의 기준은 분명하나 어느 정도 맥락의 지배를 받으며 반면, ‘꺼지다’ 부류는 변화의 전과 후의 사태가 모순 관계에 있으므로 맥락에 상관없는 완결성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정 사건을 수식하는 양태 부사인 ‘계속’을 포함한 문장과 ‘-고 있다’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계속’과 ‘-고 있다’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두 가지 표현이 같이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시한다. 이 경우에는 파생 기동 동사를 포함하는 문장들은 각 문장의 해석의 차이가 크다.

- (17) a. 꽃송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
 b. 이 방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 (18) a. 기차의 출발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b. 식탁이 계속 깨끗해지고 있다.
- (19) a. 촛불이 계속 꺼지고 있다.
 b. 그 낡은 건물의 창문이 계속 깨지고 있다.

(17), (18), (19)의 동사들은 모두 ‘-어지다’류의 기동 동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상적 의미를 갖는다. (17)에서는 ‘계속’과 ‘-고 있다’가 과정의 진행을 수식하거나 나타내는 반면, (18)과 (19)의 경우에는 사건 전체의 반복(repetition)이나 비한정적인 복수대상에 대한 개별 사건의 연속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17)의 예들은 완성 동사와 같이 미완결(atelic)의 해석을 가지며, (18)과 (19)의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달성 동사와 같이 완결(telic)의 해석을 갖는다. 지금까지 논의한 파생 기동 동사와 시간 부사구, 양태 부사구, 그리고 ‘-고 있다’ 구성의 공기 관계와 그 상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 문법성 판단에 대한 의문은 이 부분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역시 한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철수가 세 달 만에 거의 집을 (다) 지었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거의가 수식하는 것이 과정의 완결정도를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의’가 수식하는 것이 ‘세 달 만에’라는 시간을 부사구인지 아니면 ‘다’와 같은 정도 부사인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의’가 반드시 동사만의 완결성을 드러내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20)

부사구 \ 동사부류	‘높아지다’류	‘낮어지다’류	‘꺼지다’류
시점 부사구(-에)	×	×	○
지속 부사구(-동안)	○ (과정 수식)	×	? (상태 수식)
시간틀 부사구(-만에)	○	○	○
‘거의’	×	○	○
‘계속’/‘-고 있다’	○ (과정 수식)	○ (사건 반복)	○ (상태 지속/ 사건 반복)

이와 같이 결합 가능한 부사구의 종류와 그 상적 의미 해석에 따라서 파생 기동동사는 세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이러한 의미 해석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척도 개념과 논항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각 동사 부류가 나타내는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Pustejovsky (2000)의 시간·지속 원리를 근거로 밝혀 보겠다.

3. 척도(scale) 개념과 대상 논항

위에서 제시한 세 부류의 파생 기동 동사가 갖는 서로 다른 특징을 우선 척도 개념과 관련된 논항 구조 상의 특징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동사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논항은 아무런 의지(volition)가 없는 대상 논항(theme argument)이다.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일부러’와 같이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사나 주어의 의식이나 주의를 나타내는 ‘조심스럽게’와 같은 부가어와는 공기할 수 없다.

- (21) a. *이 방의 온도가 일부러 높아졌다.
 b. *기차의 출발이 계속 늦어졌다.
 c. *촛불이 일부러 꺼졌다.

- (22) a. *이 방의 온도가 조심스럽게 높아졌다.
 b. *기차의 출발이 조심스럽게 늦어졌다.
 c. *촛불이 조심스럽게 꺼졌다.

‘높아지다’류의 기동 동사와 ‘낮어지다’류의 기동 동사, 그리고 ‘꺼지다’류의 논항은 그 의미에 있어서 각기 다른 자질을 갖는다는 점이 눈에 띄인다. 먼저 다음의 예들을 통해 ‘높아지다’류 기동 동사의 논항에 대해서 살펴보자.

- (23) a. 이 방의 온도가 높아졌다.
b. 이 방이 온도가 높아졌다.

- (24) a. 꽃송이가 커졌다.
b. 꽃송이의 크기가 커졌다.
c. 꽃송이가 크기가 커졌다.

(23a)의 주어인 ‘온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원(dimension) 상의 척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또한 (24a)는 커지는 변화가 반영되는 것은 대상 논항으로 실현되는 꽃송이인 동시에 근본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밝혀서 꽃송이의 크기이다. ‘커진’ 결과는 꽃송이의 크기로 판단된다. 이것은 꽃송이라는 물리적 대상이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으로 이 물리적 대상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Kim et al. (1999)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속성은 크기, 무게, 높이, 등등의 ‘차원 명사(dimensional noun)’로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 명사는 (24b)에서와 같이 관련 명사가 수식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23b)나 (24c)에서와 같이 소위 이중 주격 문장에서 또 다른 주어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높아지다’류의 기동 동사는 차원 명사를 본질적인 대상 논항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늦어지다’류 기동 동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 (25) a. 기차가 늦어졌다.
b. 기차의 출발/도착이 늦어졌다.
c. 기차가 출발/도착이 늦어졌다.

(25a)의 ‘기차’는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단순한 교통 수단을 의미하지 않고 맥락에 따라서 기차와 관련된 사건, 즉 (25b)에서와 같이 ‘출발’이나 ‘도착’을 의미한다. 즉, 기차는 사건 논항의 해석을 갖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사건 명사는 차원 명사는 아니지만 이 문장은 시간의 분명한 기준점을 근거로 ‘늦어짐’을 의미한다. 사건 명사는 간접적으로 일종의 차원을, 그리고 약한 척도 자질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대상 논항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변화는 대상 논항과 관련된 하위 사건이 겪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아지다’류의 기동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늦어지다’류의 기동 동사들도 진정한 논항은 그 대상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높아지다’류의 기동 동사는 ‘늦어지다’류의 기동 동사와 다음과 같은 논항의 실현 상의 차이를 보인다.

- (26) a. ?*방이 높아졌다.
b. 서류가 늦어졌다.

‘높아지다’류의 기동 동사는 (26a)에서와 같이 동사와 관련된 차원 명사를 기본적인 속성으로 하지 않는 명사는 대상 논향이 될 수 없는 반면 (26b)의 ‘낮어지다’류의 기동 동사는 명사와 관련된 사건을 동사에 의해서 맥락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26b)의 ‘서류’는 서류의 제출이나 작성 등으로 해석이 된다. 이는 두 가지 유사해 보이는 부류의 동사들이 보이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꺼지다’류의 기동 동사들의 논향은 이 두 유형의 기동 동사들과 달리 다음과 같이 대상 논향 자체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또한 ‘켜기’와 같은 사건 명사나 ‘밝기’와 같은 차원 명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꺼지다’류의 기동 동사들은 대상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며 실제 논향은 그 대상 자체가 된다.

- (27) a. 촛불이 꺼졌다.
- b. *촛불의 켜기/밝기가 꺼졌다.
- c. *촛불이 켜기/밝기가 꺼졌다.

따라서, 논향 구조에 있어서 세 부류의 기동 동사가 보이는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8)

동사부류 \ 논향/유형	논향의 특성	유형
‘높아지다’류	차원(dimension)	등급(等級) 기동 동사
‘낮어지다’류	사건(event)	반등급(半等級) 기동 동사
‘꺼지다’류	대상(physical object)	비등급(非等級) 기동 동사

- (29) a. 등급 기동 동사: 높아지다, 낮아지다, 커지다, 무거워지다, 녹다, 멀어지다, 가까워지다,
- b. 반등급 기동 동사: 낮어지다, 급해지다, 깨끗해지다, 더러워지다, 바빠지다, 한가해지다,
- c. 비등급 기동 동사: 꺼지다, 깨지다, 떨어지다, 가려지다,

‘높아지다’류의 기동 동사는 차원 명사를 논향으로 취하며 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등급 기동 동사’(gradable inchoative verb)이고 ‘낮어지다’류의 기동 동사는 간접적인 척도의 도입이 가능하므로 ‘반등급 기동 동사’(semi-gradable inchoative verb)로 정의할 수 있다. 반면, ‘꺼지다’류의 기동 동사는 대상 자체의 본질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달성 동사로 ‘비등급 기동 동사’(non-gradable inchoative verb)로 정의할 수 있다.

4. 사건 지속 원리(event persistence principle)와 사건 구조

일반적으로 기동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순간적이고도 즉각적인 변화이다. 그런데 변화가 아무리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그 변화의 순간은 상대적으로 아주 짧고 순간적일 뿐, 두 개의 복합 사건 구조를 이루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미 관찰된 바에 따르면 파생 기동 동사들의 양상이 전형적인 달성 동사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높아지다’류의 등급 기동 동사나 ‘늦어지다’류의 반등급 기동 동사가 나타내는 변화가 정도에 따라 그 실현이 반영되는 반면에 ‘꺼지다’류의 비등급 기동 동사는 정도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모순 관계의 서로 다른 상반된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변화가 일정한 기준을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일어나는가, 즉 어떠한 변화가 척도(scale)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가의 여부를 알아보자. 먼저, ‘점점’과 같은 점진적 과정을 나타내는 부사와 공기할 경우를 살펴보자.

- (30) a. 꽃송이가 점점 커졌다.
 b. 이 방의 온도가 점점 높아졌다.
- (31) a. 기차의 출발이 점점 늦어졌다.
 b. 식탁이 점점 깨끗해졌다.
- (32) a. ?*촛불이 점점 꺼졌다.
 b. ?*그 집의 창문이 점점 깨끗해졌다.

이때 (30)과 (31)의 동사들은 주어 논항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점점’은 사건 진행 과정의 양상을 수식해서 변화하는 과정이 조금씩 심화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심화되어 진행되고 있음이란 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정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도의 척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32)의 동사들은 모두 순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 상태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과정의 진행 양상을 나타내는 부사와는 나타날 수 없다. 또한 ‘점점’과 나타날 수 없음은 척도 개념을 염두에 둔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정도의 심화를 나타내는 또 다른 부사 ‘더욱’도 등급 기동 동사와 반등급 기동 동사와는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비등급 기동 동사의 경우에는 함께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33) a. 꽃송이가 더욱 커졌다.
 b. 이 방의 온도가 더욱 높아졌다.

- (34) a. 기차의 출발이 더욱 늦어졌다.
 b. 식탁이 더욱 깨끗해졌다.
- (35) a. *촛불이 더욱 꺼졌다.
 b. *그 집의 창문이 더욱 깨졌다.

정도의 심화는 어떤 척도 상의 값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척도상의 비교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33)와 (34)의 예문들의 경우에는 그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꽃송이의 크기가, 온도의 정도가, 출발의 시간, 식탁의 깨끗한 정도가 그 변화의 진행의 정도가 어떤 척도 상의 값에서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즉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척도에 의존하여 수량화(quantization)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35)의 예문들의 경우에는 수량화한다면 사건 전체의 반복을 의미할 뿐 진행의 정도를 나타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등급 기동 동사와 반등급 기동 동사는 정도의 달성을 나타내는 정도 달성 동사(degree achievement)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 장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의 변화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가를 밝히고 그 변화를 사건 구조로 표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변화를 포함하는 사건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의미론과 논리학 연구에서 사건은 그 문장이 나타내는 속성을 끝내거나 시작하는데 작용한다고 간주되고 있다. Pustejovsky (2000)도 속성의 유지와 종결에 대한 사건의 속성을 다음과 같은 속성 관성 원리(the principle of property inertia)로 제시하였다.

- (36) a. 속성 관성 원리(The Principle of Property Inertia): objects and their properties tend to remain as they are unless explicitly affected.
 b. 특질 선택 명제(Qualia Selection Thesis): modifiers selectively bind to specific qualia of the head noun.
- (37) a. 관문(GATE): For an event description, $\delta \in \mathcal{A}$, in the domain of the matrix predicate P , δ is *gated* by P only if the property denoted by δ is either initiated or terminated by P .
 b. 지속(PERSIST): If δ is not gated, then it is said to *persist* relative to the matrix predicate P .

(36a)의 속성 관성 원리에 의하면 어떤 대상이나 그 속성은 명시적으로 영향을

10) Dowty (1979)는 이러한 ‘높아지다’나 ‘낮아지다’류의 동사를 정도 달성 동사(degree achievement verbs)라고 하고 전형적인 달성 동사를 절대 달성 동사(absolute achievement verbs)라고 한다.

받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36b)의 특질 선택 명제는 수식어는 핵어 명사의 특정한 특질을 선택적으로 결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단 문장이 의미하는 사건은 그 사건에 참여하는 대상 자체나 그 대상의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37a)에서와 같이 관문 함수인 술어가 의미하는 자질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경우에는 사건이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7b)와 같이 사건 구조는 지속된다는 것이 바로 사건 구조 지속의 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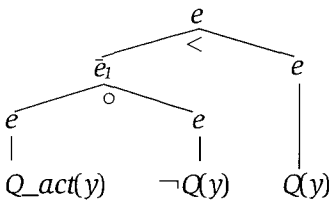
이러한 사건 구조 지속의 원리에서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Pustejovsky (2000)는 어떤 변화를 함의하는 사건은 대립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38) a. The window *broke*.
- b. [become([broken(the-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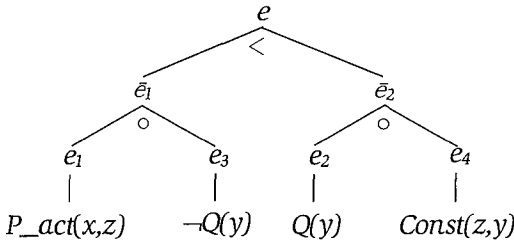
- (39) a. John *built* a house.
- b. [cause(act(john,y)&become(house(y)))]

(38a)에서 ‘broke’는 전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달성 동사이자 기동 동사 (inchoative verb)이고, (38b)에서와 같은 어휘 개념 구조(lexical conceptual structure)를 갖는다. (38a)는 창문이 깨지지 않은 상태를 전제하며 그리고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난 후에 그 결과 상태가 바로 깨진 창문이 됨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완성 동사라고 하는 (39a)의 ‘built’는 주어가 어떤 다른 요소에 변화를 가하여 어떤 대상이 생겨나는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두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모두 어떤 변화이다. Pustejovsky (2000)는 사건 지속 구조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달성 동사와 완성 동사의 사건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 (40) a. 달성 동사(예. *break*)



b. 완성 동사(예, *bui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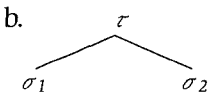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어의 기동 동사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라는 사건의 양상은 이와 같이 단순하지 않다. 특히 전형적으로 상태의 변화는 모순 관계인 $\langle P, \neg P \rangle$ 의 이원적인(binary) 대립 자질로 나타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상의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가 아닌 정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점진적인 대상 논항의 변화는 이원적인 대립이라고 보다는 정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Pustejovsky (2000)에서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의 사건구조에 대해 이원 대립(binary opposition)과 극 대립(polar opposition)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각 대립 관계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는다.

(41) 이원 자질(Binary Prop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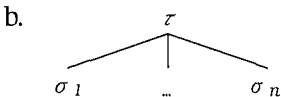
a. $\langle \sigma_b, \sigma_2, \tau, \sqcup, \sqsupseteq \rangle$ realizes a binary predicate P , where τ is a local top type for this sortal array, such that $\sigma_b, \sigma_2 \sqsupseteq \tau$, and $\neg \exists \sigma [\sigma \neq \sigma_1 \vee \sigma \neq \sigma_2]$. That is, σ_1 and σ_2 exhaustively partition τ .



c. $\langle P, \neg P \rangle, \langle P, Q \rangle, \langle \neg Q, Q \rangle$

(42) 극 자질(Polar Property)

a. $\langle \mathcal{L}, \tau, \sqcup, \langle, \sqsupseteq \rangle$ realizes a polar predicate P , where \mathcal{L} is a sortal array of types, τ is a local top of this sortal array, such that $\sigma_1, \dots, \sigma_n \in \mathcal{L}$ for $\sigma_i \sqsupseteq \tau$, and $\sigma_i < \sigma_{i+b}$, and there are two poles, σ_b and σ_n , that are distinguished sorts.



c. $d_1 >_{pos} d_2 \Leftrightarrow d_2 >_{neg} d_1$

지금까지의 분석의 결과와 Pustejovsky (2000)의 대립 구조를 종합해 보면 등급 기동 동사는 극 자질을 갖는 반면, 비등급 기동 동사는 이원 자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등급 기동 동사의 경우에 변화가 척도 상에서 그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척도는 유일한 최소의 정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등급 기동 동사는 대상에 의해서 그 한계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쪽 끝이 열린(open-ended) 척도를 가지므로 과정의 마지막 끝점을 예측할 수 없다.¹¹⁾ 그리고, 등급 기동 동사는 반대(contrary) 관계이므로 척도상의 어떤 끝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있으나 반면, 비등급 기동 동사는 부정적인 상태를 전제하고 시작과 끝점이 분명하게 모순 관계로 양립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의 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등급 기동 동사이다. 이 부류의 기동 동사는 맥락에 따라서 등급적으로, 또는 비등급적으로 행동하므로 중의적이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Pustejovsky (2000)의 대립 자질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 부류의 기동 동사들은 맥락에 따라 대조적인 등급적, 또는 비등급적으로 실현되므로 반등급 기동 동사는 이원 대립 자질과 극 대립 자질을 모두 갖는 경우라고 추론할 수 있다.

Pustejovsky (2000)의 대립 구조를 받아 들어서 세 부류의 파생 기동 동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립 자질의 분포를 설정할 수 있다.

(43)

대립 자질 \ 동사 유형	이원 자질	극 자질
등급 기동 동사	-	+
반등급 기동 동사	+	+
비등급 기동 동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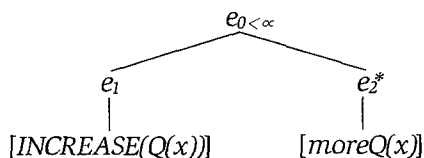
(43)과 같은 분포를 통해서 세 가지 유형의 기동 동사의 변화 양상이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이 각각의 어휘 의미 구조에 반영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Pustejovsky (2000)에 의하면 대립 구조는 새로운 결과 상태를 도입하거나 최초의 상태를 제거하거나, 또는 변화시키는 관문 함수(gating function)와 관련이 있다. 또한 이원 자질이나 극 자질은 동사의 사건을 ‘변화’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러한 이원 자질과 극 자질의 분포를 근거로 이 세 가지 기동 동사의 사건 구조와 특질 구조(qailia structure)를 살펴보도록 하자. 생성 어휘부 이론에서는 사건 구조의 표상에서 ‘*’는 사건 구조상의 중점(headedness)을 나타낸다. Pustejovsky (1995)에 의하면 중점은 술어의 사건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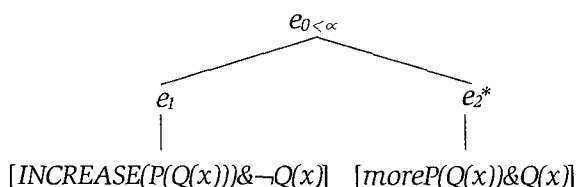
11) ‘높다’와 같은 등급 기동 동사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며 이는 일종의 비대칭(asymmetry) 현상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등급 기동 동사들과 동일하다.

하위 사건에 부여되며 이 중점 자질에 의해서 어휘 의미 구조가 표면의 통사 구조로 연결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동 동사의 사건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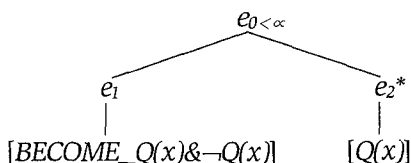
(44) a. 등급 기동 동사(예. 높아지다)¹²⁾¹³⁾



b. 반등급 기동 동사



c. 비등급 기동 동사



위에 제시된 특질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각각의 사건 구조에서 모두 결과 상태에 중점이 부여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이 세 가지 기동 동사 기본적으로 결과 상태가 두드러진 달성 동사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세 유형의 기동 동사는 각각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 Kim (2002)에 의하면 등급 기동 동사는 전형적인 정도 달성 동사이고 그 하위 사건은 서로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대립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하위 사건의 중첩 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위 사건의 중첩과 같은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순서 관계로 가정한다.

13) 이러한 정도의 완성을 나타내는 사건을 Hay et al. (1999)는 다음과 표시한다.

- a. INCREASE(Q(x))(d)
- b. DECREASE(Q(x))(d)

여기서 x는 변화의 자질이고, Q는 x의 형용사와 관계된 자질로 바꾸어 주는 함수이며 d는 차이값(difference value)이다. 또한 함수 Q에 의해 도입되는 것은 차원과 관련된 '높이, 길이, 너비, 시간' 등의 자질이므로 Q는 척도의 차원을 도입하는 당연 논항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화는 정도 달성 동사의 상적 자질은 형용사의 척도 자질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4a)와 (44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척도 개념과 관련된 극 대립 자질을 가진 등급 기동 동사와 반등급 기동동사는 선행하는 과정의 하위 사건에 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술어 *INCREASE*를 포함하고 있고 후행하는 결과의 하위 사건에는 극 대립을 나타내는 *moreP*나 *moreQ*와 같은 술어를 포함하고 있다. (44)의 도식에서 결과 상태에 표상되는 술어는 정도 변화에 따른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44b)에 제시된 반등급 기동 동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 하위 사건에 *INCREASE(P(Q(x)))&¬Q(x)*를 갖고 두 번째 하위 사건에는 *moreP(Q(x))&Q(x)*를 포함한다. *INCREASE(P(Q(x)))*는 대상 논항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하위 사건의 정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moreP(Q(x))*는 정도 변화 사건의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시작 사건의 $\neg Q(x)$ 와 종결 사건의 $Q(x)$ 는 이 반등급 기동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동시에 이원 자질에 의한 대립 구조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반등급 기동 동사의 특질 구조는 극 자질과 이원 자질을 모두 나타낸다. 이와 달리 (44c)의 비등급 기동 동사는 전형적인 달성 동사의 사건 구조를 갖는다.

5. 기동 동사의 생성적 기제

앞에서 살펴본 등급 기동 동사와 반등급 기동 동사와 관련된 다양한 표면의 통사 구조는 이들 기동 동사들의 논항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논항 실현의 다형대성(polymorphism)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동 동사의 생성적 측면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예문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 (45) a. 이 울타리가 높아졌다.
 b. 이 울타리가 높이가 높아졌다.
 c. 이 울타리의 높이가 높아졌다.

- (46) a. 기차가 늦어졌다.
 b. 기차가 출발/도착이 늦어졌다.
 c. 기차의 출발/도착이 늦어졌다.

앞의 3절과 4절에서 밝힌 것처럼, 등급 기동 동사는 차원 명사를 그 참논항(true argument)으로 취하고 반등급 기동 동사는 사건 명사를 역시 참논항으로 가져야 한다.¹⁴⁾ 그러나 (45a)와 (46a)와 같이 참논항이 아닌 요소가 논항처럼 나타날

14) 아래 문장들을 예로 들어 '늦어지다'가 '시간'을 마치 당연 논항으로 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한 심사 위원으로부터 제기되었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문법성이나 의미 해석에 있어서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어휘 의미 구조와 다른 논항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제로 선택된 논항들은 각각 높이 온도와 같은 차원 명사나 사건 명사로 해석되고 있으며 또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자.

- (47) a. ??*이 방이 높아졌다.
 b. 이 방이 온도가 높아졌다.
 c. 이 방의 온도가 높아졌다.

- (48) a. 식탁이 깨끗해졌다.
 b. 식탁의 표면 상태가 깨끗해졌다.

(47a)은 대상 논항 ‘이 방’이 ‘높아지다’와 연관될 수 있는 차원 명사가 아닌 반면, (47b)와 (47c)는 차원 명사 자체가 논항으로 실현되어 있는 경우이다. (48a)는 식탁의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체 상태는 ‘부러지다’와 같은 대상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기동 동사가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식탁’이라는 명사는 식탁의 상태라는 일종의 상태 사건으로 (46)의 ‘눅어지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생성 어휘부 이론의 사건 개념을 따라서 ‘상태’도 일종의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식탁 자체의 변화이기 보다는 식탁의 표면 상태이다. 물리적인 대상인 식탁 자체의 근본적인 자질이 변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식탁과 관련된 어떤 상태를 사건 논항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높아지다’가 ‘높이’ 차원의 당연 논항을 요구한다고 하면, 대상 논항과의 의미 합성이 유형 강제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높아지다’류의 경우에는 차원상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형 강제의 경우가 과도하거나 잉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높아지다’와 같은 등급 기동 동사와 ‘눅어지다’와 같은 반등급 기동 동사, 그리고 ‘깨지다’와 같은 비등급 기동 동사의 어휘 의미 구조상의 차이를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에서 분명히 드러내는 데에는 이와 같은 유형 강제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각각의 동사가 요구하는 원래의 논항과 다른 유형의 논항이 올 경우에 그 유형이 강제되어 의미

- a. 기차의 도착 시간이 늦어졌다/빨라졌다.
 b. 기차 (출발) 시간이 늦어졌다/빨라졌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고 줄고의 논의에 결정적 반례가 될 수도 있는 증거들이다. 동사 ‘눅어지다’의 의미 구조에 당연 논항으로 시간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당연 논항이 아닌 참논항의 경우에는 ‘기차’가 오더라도 ‘기차의 출발’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눅어지다’와 같은 비등급 기동 동사의 경우에는 논항으로 반드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강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석이 되는 것은 각 동사 부류의 차이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각 동사 논항 구조의 다양한 실현이라는 생성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다형태적 현상을 설명하려면 논항 명사의 의미와 그 의미를 실현시키는 장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논항 명사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동사들이 나타내는 다형태적 실현의 생성적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45a)의 등급 기동 동사의 논항은 물리적 대상(physical object)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물리적 대상인 논항이 등급 기동 동사와 결합하여 원래의 대상 논항인 차원 명사로 해석되는 방식이 일종의 생성적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물리적 대상을 의미하는 모든 명사들은 지각적 측면에서 그것을 특징짓는 크기, 무게 등과 같은 자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물리적 대상 명사의 어휘 의미 구조는 이러한 자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에 이러한 자질들을 특질 구조상의 어떠한 역할(role)에 할당하는가가 어휘 의미 구조의 표상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차원 자질을 포함하는 물리적 대상의 추상적 자질은 물리적 대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성역(CONSTITUTIVE)에 차원 자질과 관련된 술어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구성역의 술어가 둘 이상이라면 어떻게 표상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구성역에 표상된 자질들은 그 명사에 고유하며 맥락과 별도의 것이다. 각각의 자질과 관련된 각각의 술어는 다른 술어들과 연결되고 차원 자질도 역시 그러한 구성역의 연결된 술어 가운데 하나로 표상될 수 있다. 따라서 (45)의 명사 논항 ‘올타리’는 다음과 같은 표상이 가능하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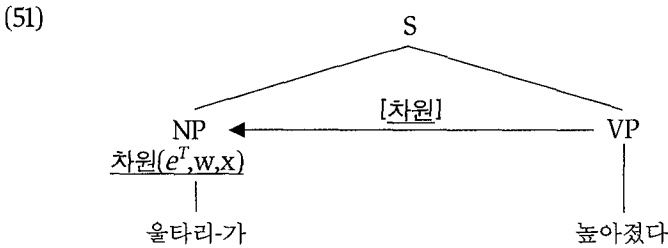
$$(49) \left[\begin{array}{l} \text{올타리} \\ \\ \text{논항구조} = \left[\begin{array}{l} \text{논항}_1 = x: \text{물리적_대상} \\ \text{당연논항}_1 = y: \text{인간} \\ \text{당연논항}_2 = z: \text{물질} \\ \text{당연논항}_3 = w: \text{차원} \end{array} \right] \\ \\ \text{특질구조} = \left[\begin{array}{l} \text{형상역} = x \\ \text{구성역} = \text{재료}(e^T, z, x) \& \text{차원}(e^T, w, x) \\ \text{기능역} = R(e^P, y, x) \\ \text{작인역} = \text{만들다}(e^T, v, x)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명사 ‘올타리’가 등급 기동 동사의 대상 논항일 경우에는 아래의 (50)에서와 같은 ‘유형 강제’(type coercion)가 작용하여 논항이 반드시 차원 명사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Pustejovsky (1995)가 제시한 ‘유형 강제’는 다음과 같다.

15) (49) 이하에 제시된 어휘 의미 구조의 표상에서 e^T , e^P 등은 입의 하위 사건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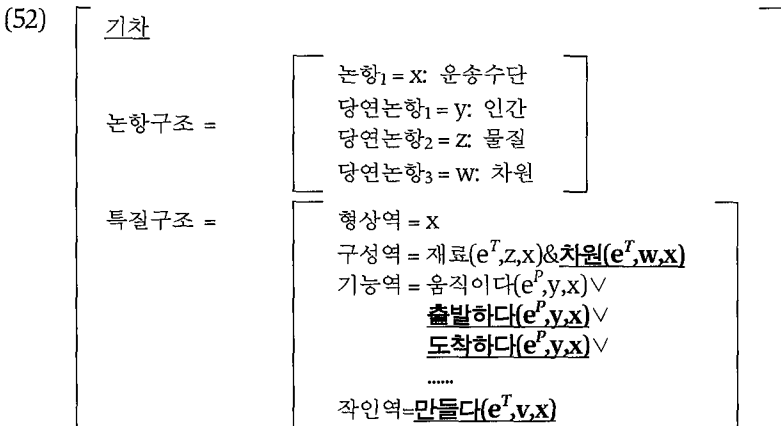
(50) 유형 강제는 논항을 함수가 기대하는 유형으로 바꾸는 의미 작용이다. 만약 이런 의미 작용이 없으면 유형 오류가 발생한다.

이것은 동사가 실제 논항의 유형이 본래 논항으로 요구하는 유형이 아닐 경우에는 실제 논항의 해석을 그 논항 명사의 어휘 의미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본래의 논항 유형이 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등급 기동 동사는 논항 명사의 유형을 차원 명사로 강제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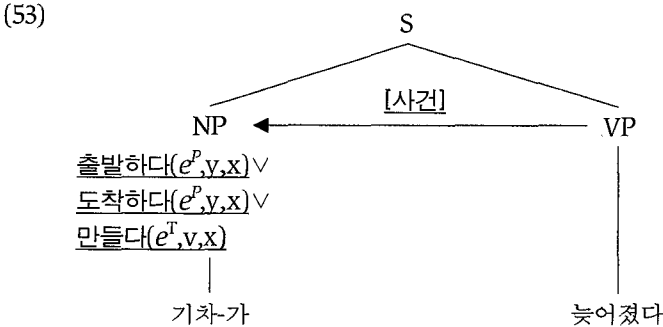
이와 같은 유형 강제 현상은 ‘울타리’의 어휘 의미 구조에 명시되어 있는 구성역의 일부분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반등급 기동 동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대상 논항이 물리적 대상이지만 등급 기동 동사의 대상 논항과는 달리 인공물로 한정된다. 따라서 물리적 대상인 논항의 의미 구조와 달리 그 기능역이 두드러지며 그 기능역의 술어들은 맥락에 따라서 달리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명사 ‘기차’의 어휘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상할 수 있다.



명사 ‘기차’가 반등급 기동 동사의 대상 논항으로 실현될 경우, 유형 강제는 아

래의 (53)과 같이 작용하여 논항이 사건 명사로만 해석되어야만 한다. 즉, 반등급 기동 동사는 논항 명사의 유형을 사건 명사로 강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대상 명사를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맥락에 따라서 기능역이나 직인역에 근거하게 된다.



등급 기동 동사와 반등급 기동 동사가 논항의 유형을 강제할 경우 명사의 유형으로 강제되는 것은 주로 특질 구조상에서 선택된다. 등급 기동 동사는 구성역의 요소를, 반등급 기동 동사는 기능역에서 그 논항의 유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어떤 관련 술어가 논항의 유형으로 채택이 되는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동사와 술어 사이의 연어(collocation) 현상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고 또한 문장이 실현되는 맥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6. 결론

이상으로 한국어의 기동 동사의 어휘 의미 구조를 생성 어휘부 이론을 근거로 또 그 상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동 동사가 나타내는 변화의 양상이 그 동사와 관련된 척도의 개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척도상에 존재하는 속성들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척도라는 연속되는 기준을 근거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시간의 차원에서 실현되었을 때 변화의 양상을 점진적으로 나타내게 한다. 반면 연속적인 척도와 관련이 없는 속성은 변화라는 사건을 통해 시간의 차원에서 순간적이고 절대적인 변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척도 개념이 기동 동사와 같은 상태 변화 동사에 시간적으로 실현된다. 이것은 척도와 같은 인지적인 요소가 기동 동사와 같은 언어 표현의 속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기동 동사 유형에 따라서 논항의 유형을 강제하는 생성적 기제를 통하여 논항 실현의 다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생성적 기

제를 통하여 각각의 어휘 의미 구조를 가진 어휘들의 결합이 각 어휘의 다의성(polysemy)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한 어휘의 의미가 다양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실현되는 다의성은 어휘의 의미 구조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재된 다의적 요소들이 맥락에 영향으로 표면에 실현되는 것이다.

현재 이 논문에서 제시된 기동 동사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다, 끝나다’ 등의 상동사와 같은 다른 기동 동사의 어휘 의미 구조에 대한 유형적 고찰의 시작이며 상태 변화 동사의 의미 기술을 위한 일종의 모형을 제시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자연 언어에 나타나는 시간과 사건의 양태에 대한 설명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여기에 제시된 세 가지 유형의 기동 동사들 가운데 등급 기동 동사와 반등급 기동 동사의 경우에는 대상 논항의 의미를 생성적으로 확장하는 기제를 가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생성 기제에 대한 논의도 기대할 만하며 이는 어휘 의미 구조에 의한 인지적 추론의 시스템의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윤신. (2001a). 파생동사의 어휘의미구조 - 사동화와 피동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윤신. (2001b). 한국어 동사의 어휘의미구조와 피동화의 제약. 언어학 제30호, 89-112.
- 김윤신. (2002). 한국어 사동화와 어휘의미구조의 변화: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에 의한 접근. 언어와 정보 6(2), 57-82.
- 김윤신. (2004).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사건함수 ‘-고 있다’의 기능. 형태론 6(1), 43-65.
- 김윤신. (2004). 활동(motion) · 소비(consumption) · 창조(creation) 동사의 사건 구조에 대한 연구: 생성 어휘부 이론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52, 125-157.
- 김윤신, 이정민, 남승호. (2000). 한국어 기동동사의 사건구조. 2000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인지과학회, 101-107.
- 김윤신, 이정민, 강범모, 남승호. (1999). 한국어 피동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실현. 한국 인지과학회 1999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김윤신, 이정민, 강범모, 남승호. (2000). 한국어 피동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실현. 인지과학 11(1), 25-32.
- 남승호. (2004).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상적 의미. 인문논총 52, 75-124.
- 이정민. (1976). Cases for Psychological Verbs in Korean. 언어 1(1), 한국언어학회
- 이정민. (1982). Aspects of Aspect in Korean. 언어 7(2), 한국언어학회.

- 이정민, 김영화, 강범모, 남승호, 이하규. (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소화출판사.
- 이정민, 강범모, 남승호. (1998). 한국어 술어의 어휘의미에 대한 생성적 연구방법. *인지과학* 9(3), 한국인지과학회.
- 한송화. (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한국문화사.
- Comrie, Bernard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Oxford: Basil Blackwell.
- Dowty, Davi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 Dowty, David R.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6-619.
- Grimshaw, Jane (1991).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 The MIT Press.
- Hay, Jen, Chris Kennedy and Beth Levin (1999). Scalar Structure Underlies Telicity in Degree Achievements. *SALT* 9.
- Jackendoff, Ray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The MIT Press.
- Jackendoff, Ray (1990). *Semantic Structures*. Cambridge, MA: The MIT Press.
- Kennedy, Chris and Louise McNally (1999). From Event Scales to Adjectival Scales: Degree Modification in Deverbal Adjectives. *SALT* 9.
- Kim, Yoon-shin (2002). The Ambiguity of '-ko issta' Construction and the Event Structures of Korean Verbs. *The Proceedings of the 2002 LSK International Summer Conference* 1, 315-324.
- Kim, Yoon-shin & Chungmin Lee (2003). The Lexico-Semantic Structure of Korean Inchoative Verbs: with reference to '-e-ci-ta' class. *Proceedings of GL '2003 Second International Workshop on Generative Approaches to the Lexicon*.
- Kim, Yoon-shin, Chungmin Lee, Seung-ho Nam and Beom-mo Kang (1999). The change-of-state verbs derived from adjectives in Korean.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Tokyo.
- Krifka, Manfred (1992). Thematic relations as links between nominal reference and temporal constitution. In Sag, Ivan and Anna Sabolsci (eds.) *Lexical Matters*,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Krifka, Manfred (1998). The origins of telicity. In Susan Rothstein (eds.) *Events and Grammar*. Dordrecht: Kluwer.
- Lee, Chungmin (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Lee, Chungmin, Seungho Nam and Beom-mo Kang (1998). Lexical Semantic Structure for Predicates in Korean. In Boas, J. and P. Buitelaar (eds.), *Proceedings of ESSLLI-98 (Tenth European Summer School in Logic, Language and Information) Workshop: Lexical Semantics in Context-Corpus, Inference and Discourse*, 1-15.
- Pustejovsky, James (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In Levin, Beth and Steven Pinker (eds.) *Lexical & Conceptual Semantics*. Cambridge & Oxford: Blackwell.
- Pustejovsky, James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Pustejovsky, James (2000). Lexical Shadowing and Argument Closure. In Ravin, Yael and Claudia Leacock (ed.), *Polysemy: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Oxford University Press.
- Pustejovsky, James (2000). Events and the Semantics of Opposition. In Tenny, Carol L. and James Pustejovsky (eds.),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CSLI, 445-482.
- Rothstein, Susan (2004). *Structuring Events: A Study in the Semantics of Lexical Aspect*. Blackwell.
- Smith, Calota (1999). ACTIVITIES: STATES OR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2, 479-508.
- Talmy, Leonard (1985). Force dynamics in language and thought. *Papers from the Twenty-First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 Tenny, Carol L. (1994). *Aspectual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 Vendler, Zeno (1967).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김윤신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자우편: yoonshin69@dreamwiz.com

접수일자 : 2005. 6. 13

수정본 접수 : 2005. 9. 2

게재결정 : 2005. 9. 8